



강진 최제영



곡성 김광휘



광양 김충권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 김승호



순천 김종영



신안 박응식

보성군, 제암산휴양림 국유지 교환 추진

보성군 제암산자연휴양림은 사계절 힐링여행지로 각광을 받으며 상반기 입장객수만 10만명을 넘어서 효과 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군은 지난 1991년 제암산 일대 국유지 160ha를 산림청에서 대부받아 1996년 제암산자연휴양림을 조성 개장하여 힐링, 체험, 교육, 휴양, 치유 등 다양한 산림복합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2004년 문덕면 용암리 일대 240ha를 매입하여 국유지와 교환을 추진해왔으나, 산림청의 국유지효율적인 관리 입장으로 난항을 겪어왔다.

민선6기 출범이후 이용부 군수는 군직영 관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에 큰 관심을 갖고 지난해 7월 서부

휴양림 국유지·군유지, 13년만에 교환 성사 기대

효율적인 시설 운영 산림휴양복합단지로 자리매김

지방산림청장과 면담을 통한 교환 건의를 시작으로 현장확인 및 6차례 협의, 4차례 산림청 방문설명 등 적극적인 협의와 조치를 취해왔다.

그 결과 산림청에 교환 승인신청, 국유지 지목 분할, 임목 및 토지 감정평가, 군의회의 군유재산관리계획 심사 및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했으며, 7월중 감사원의 협의를 완료되면 산림청의 최종 교환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암산자연휴양림 부지가 군유지로 교환되면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환경성질환에방관리센터, 유아숲체

원 등 주요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명실공히 전국 최고의 숲속 휴양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부 군수는 "국·군유지 교환으로 지역산림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산림청과 군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여 바람직한 산림 미래상을 제시할 것이다"며, "전국 최고의 산림휴양복합단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각종 시설물 조성 및 보완사업 추진으로 보다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상 최고의 휴양지 제암산 자연휴양림은 펜션형 숲속의 집 24동, 연립형 숲속휴양관 12실, 제암휴양관 11실 등 총 27동 47실 숙박시설을 갖춰 300명 수용이 가능하다.

또한, 교육시설인 다목적강당, 대규모 행사가 가능한 7,670㎡ 잔디광장, 숲속모험시설인 에코어드벤처와 전용짚라인, 유아들이 숲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산나물 채취 체험과 숲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유아숲 체험원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히,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해발 500m 아릅드리 편백숲까지 장애 없이 오를 수 있는 무장애 데크로드 5.8km 더늘길이 있어 전국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보성=안구일 기자



장성군, 공공실버주택 '첫 삽'

주거·복지·의료시설 한 곳에...150세대 규모로 건립

국토교통부가 미래형 노인복지 주택 모델로 내세운 '현대식 공공실버주택'이 전국에서는 최초로 장성에서 첫 삽을 뜬다.

장성군은 3일 공공실버주택이 들어서시는 장성군보건소 앞 장성을 영천리 일원에서 국토교통부 관계자, 국회의원, 주요 유관기관장 등 주요 내빈과 군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성 공공실버주택 건립공사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장성 공공실버주택'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주거와 복지, 건강, 경제활동 관련 시설을 한데 모은 현대식 복합 노인주거시설로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첫 공모를 실시해 2016년 1월 9개의 자치단체를 최종 선정했으며 광주 전남에서는 장성군이 유일하다.

건립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총 164억원으로 정부재원과 민간기금을 통해 전액 지원된다. 건립비는 151억 5천만원이며, 건립 후 각종 시설 운영에 필요한 5년간 관리비 12억 5천만원이 포함됐다.

당시 사업지로 선정된 9개 자치단체 중 장성에서 최초로 열린 기공식답게 국회의원과 국토교통부 주요 인사, 전라남도 관계자들이 많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유치가 확정된 직후부터 안팎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아 온 사업답게 기공식에 1000여명이 축하객이 몰려 군민의 높은 기대치를 반영하기도 했다.

기립식은 식전행사인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그 동안의 사업 경과보고와 내빈들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대한노인회 장성군지회에서 공공실버주택 유치를 성공시킨 유두석 군수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이후 유두석 군수를 중심으로 국회의원, 군의원, 주민대표, 노인회 대표, 유관기관장 등이 대표

로 나서 기공 기념 시합을 하며 행사가 마무리됐다.

이번에 건립되는 공공실버주택은 150호 규모로, 독거세대와 부부세대가 머무를 수 있도록 25㎡(90세대)와 35㎡(60세대) 두 가지 타입으로 지어지며, 건물 1층은 건강관리를 위한 물리치료실과 헬스케어실, 취미실, 여가활동실, 부엌실 등이 갖춰진 실버복지관이 조성된다.

특히 실버복지관은 거주자뿐 아니라 군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당초 사업계획인 700㎡ 규모보다 확장해 1,000㎡로 건립한다.

2016년 공모에 선정될 당시에는 100세대 규모로 사업비 10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었으나, 유두석 군수가 노인세대가 많은 시골 지역에 필요한 사업임을 꾸준히 강조하며 설득한 결과 사업비가 당초보다 1.5배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실버주택은 2018년 8월에 준공될 예정으로, 2018년 5월부터 입주자 모집에 들어간다.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인 만큼 국가유공자와 독거노인에게 입주 자격의 우선순위를 두고 입주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유두석 군수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일주일 어르신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행복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유치소식이 들린 후부터 주민들의 입주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며 "어르신 뿐 아니라 자녀들도 기다리고 있는 사업인 만큼 신속하게 계획대로 건립을 완료해 2018년 9월에는 입주자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반정모 기자

올여름 피서는 시원하고 안전한 함평에서

엑스포공원물놀이장·돌머리해수욕장 등 가족 피서객에 제격



때 이른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벌써부터 피서계획을 짜느라 고민하는 이들이 많다.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풍성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자랑하는 함평군이 안성맞춤이다.

광주, 나주 등과 인접한 곳 중 해수욕장과 물놀이장에 접근이 용이하고 시설 또한 가장 잘 갖춰진 곳이 함평이다.

특히 미취학 아이들을 둔 가족이

라면 함평읍내에 위치한 함평엑스포공원 물놀이장을 우선 추천한다.

이곳은 깨끗한 수질과 안전한 시설로 유명해 어린아이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다.

5000㎡의 크지 않은 규모, 깊지 않은 수심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기에 제격이다.

2개의 정수시설이 운영기간 내내 하루 3000톤의 물을 끊임없이 순환식으로 정화해 깨끗한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한다.

파도풀, 키즈풀, 유아풀에 워터 슬라이드까지 있어 아이들이 지루할 틈이 없다. 지난해 풀장을 더 늘리고 워터버킷 등 새로운 시설도 만들어 더욱 신나고 재미있는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안전요원을 대폭 늘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부모들이 아이들 걱정 없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쉼터와 그늘막 등 편의시설도 확충했다. 물놀이장은 오는 8일부터 8월15일까지 운영하며, 요금은 성인 9천원, 소인 7천원이다.

함평읍 석정리에 위치한 돌머리해수욕장에서는 갯벌에서 조개를 캐며 특별한 추억도 쌓을 수 있다.

지난해 전국 청정해수욕장 20곳에 선정된 이곳은 깨끗한 갯벌 아름다운 낙조, 상쾌한 소나무숲이 어우러진 대표 피서지다.

깨끗한 갯벌과 넓은 소나무숲은 재미와 휴식을 동시에 붙잡는다. 뱀장어 잡기, 개락이 바지락 캐기, 갯벌생태체험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거리도 마련됐다.

해질녘 서해바다를 붉게 채색하는 낙조는 보는 이의 가슴을 감동으로 물들인다. 현재 이곳은 돌머리지구 연안유

유지 개발사업의 마무리가 한창이다.

사업이 끝나면 해변탐방로, 해수욕장, 갯벌탐방로, 오토캠핑장 등이 들어서 첫 손님을 맞이한다.

돌머리해수욕장은 15일 개장해 8월20일까지 문을 연다.

물놀이에 지치면 양서파충류생태공원을 꼭 찾아볼 것을 권한다.

이곳은 국내 최초로 뱀과 파충류를 소재로 조성된 곳으로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아트바라 산지락에 자리 잡은 커다란 뱀 모형의 전시관은 그 자체로 장관이다.

능구렁이, 까치살모사 등 국내종과 외국종인 김코브라, 사해리살모사, 돼지코뱀 등을 비롯해 보기 힘든 아나콘다까지 91종 700여 마리를 볼 수 있다.

특히 관람에만 머무르지 않고 직접 만지고 체험할 수 있어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놀이터다.

운영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며, 입장료가 어른 3천원, 청소년 2천원, 어린이 1천원으로 매우 저렴한 것도 장점이다.

함평=김광찬 기자

영광군, 농산물우수관리 교육 실시

영광군은 지난달 29일 영광농협 3층 회의실에서 양파, 고추, 밀, 쌀 보리, 새싹보리 재배 농업인 20여

명을 대상으로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교육을 실시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양재복 주무관이 강사로 나선 이번 교육은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을 받기 위한 농업인을 위해 실시됐으며, 최근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안전한 먹거리에 관심을 갖는 소비자가

많아짐에 따라 GAP인증을 받기 위한 농업인들의 배움의 열기가 그 어느 교육보다도 뜨거웠다. 이번 교육은 GAP농산물 재배기술 및 인증 심사절차의 주제로 진행됐다.

영광=서희권 기자

스마트폰에서 검색해보세요! (주)에이치엔프레스 검색

자연석/호박돌/간판석/판재석/조경용석재 등 석제품의 모든 것

광주 전남 석제품 전문

저희 (주)에이치엔프레스는 석제품전문대량판매 및 납품전문업체로서 자연석, 호박돌, 간판석, 판재석, 조경용 등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TEL : 062-224-5800 "무료상담원영" H·P : 010-5448-8868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